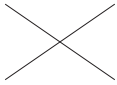


BOOKS



& DREAM

독서와 진로 사이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은 경영학과
정보통신기술(CT)이 결합된
융합 학문이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해결할 것인가를 다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정보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 기업,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경영정보학과,
학과 이해를 돕는 책을 알아봤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도움말 안현철 교수(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참고 국민대 · 동국대 전공 안내서

경영이 정보통신기술을 만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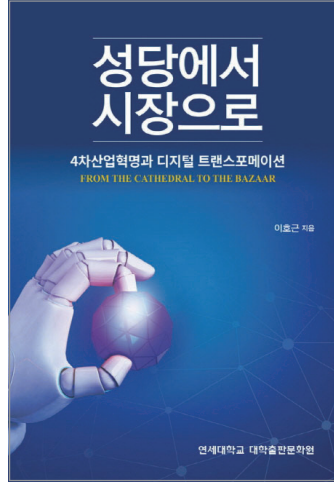
기업을 경영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영정보학과는 학과 이름에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를 담았지만, 오히려 경영학과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안현철 교수는 “경영정보학과는 경영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학문이다. 경영학을 기본으로 IT 역량을 같이 키워서 경영 분야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경영학과는 기업이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표다. 반면, 경영정보학과는 경영활동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기업과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교수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이때 과거에는 경영자의 경험이나 직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빠르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통신기술의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예가 엑셀이다. 1학년 때 엑셀을 배우고 2학년이 되면 ERP(전사적 자원관리), SCM(공급망 관리), CRM(고객 관계관리)처럼 산업별로 응용하는 부분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경영정보학과 학문적 배경을 이해했다면 경영정보학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안 교수는 “인문학 역량과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을 고루 갖추면 금상첨화다. 문과적 성향이 강한 학생은 수학을 보완하면 되고, 반대로 이과지만 문과적 성향이 있는 학생이라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영적 역량, IT적 역량을 키운다면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학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책으로는 <토닥토닥 정보 시스템> <성당에서 시장으로>를 추천했다. 최근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는 <가장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읽어볼 것을 권했다.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는 경영정보 혁신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술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양서로 추천했다. IT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엑셀을 이용한 정보분석과 경영의사결정>을 꼽았다. 대학에 진학하면 엑셀 외에도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학습하는데, <Do it! 점프 투 파이썬>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 입문서로 추천했다. 이 밖에 <R 기초와 활용>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통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통계·기계학습 분석 도구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인 ‘R’의 기초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입문서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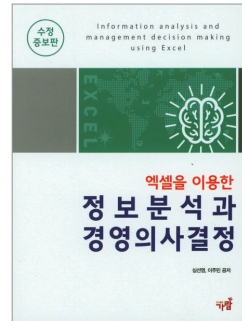
성당에서 시장으로 –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은이 이호근 퍼넨곳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성당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스마트한 혁신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 ‘개방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기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당(Cathedral)’ 방식이며, 외부의 파트너들을 동참시키면 ‘시장(Bazaar)’ 메커니즘이 된다.
시장 방식의 대표주자가 바로 애플이다. 애플의 아이폰이 업계 최고가 된 데에는 앱스토어를 들 수 있다. 애플은 자사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이폰을 위한 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220만 개나 되는 다양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고 결국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도닥도닥 정보 시스템
지은이 이호권, 차경진
퍼넨곳 카오스북

소설처럼 읽는 데이터, 정보, 시스템 그리고 경영 이야기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 속에서 어려운 정보통신기술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안 교수는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라며 경영정보학과에 관심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추천했다.



엑셀을 이용한 정보분석과 경영의사결정
지은이 이주민, 심선영
퍼넨곳 도서출판 가람

경영의사결정을 돕는 최고의 도구, 엑셀 이야기
경영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경영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Excel)이다. 엑셀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책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개념 쏙쏙 통계학
지은이 와쿠이 요사유키
윤진이 정석오, 김선숙
퍼넨곳 성안당

친절한 통계학 설명서
통계학은 경영정보학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이지만 개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 책은 통계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초부터 대학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다변량 분석, 베이즈안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설명해준다.



**경영정보학의
내실을 다져준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엄세리
중국대
경영정보학과 1학년

Q 경영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A 경영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분야도 배울 수 있는 조금 특별한 학과를 희망했어요. 그러던 중 경영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경영, 회계, 통계 등의 공부에 더해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경영정보학과를 알게 됐죠. 제가 원하던 경영학에 무언가를 더한 융합적인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껴 지원했습니다.

Q 고교 때 진로와 관련해 읽은 책 중에서 도움을 받은 책은?

A 〈경영학 콘서트〉는 제가 처음 읽은 경영학 관련 책이었는데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항공사, 넷플릭스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학 개념들을 쉽게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 해 그 다음해의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는 형식의 책인데 여러 분야의 유행을 다루는 만큼 공감하면서 어렵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경영은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며 트렌드를 파악하는 시각을 기른다면 진정한 경영의 시작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대학 진학 후 전공과 관련해 읽은 책 중 도움이 된 책은?

A 경영정보학과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통계학을 통해 빅데이터를 다룬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가 도움이 됐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어렵듯이 이해했는데, 이 책을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었어요.

Q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A 전공과 관련해 〈경영학 콘서트〉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를 추천해요.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익숙하긴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짝 채워준 책들이에요. 〈5초의 법칙〉은 제목처럼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5초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나쁜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다짐을 하도록 돕는 책이에요.



경영학 콘서트
지은이 장영재
퍼낸곳 비즈니스북스

“경영학과 관련해 처음 읽은 책이었는데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사례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해줘 학문에 대한 벽을 낮출 수 있었어요. 경영과 수학, 경영과 과학의 관계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학문 간 의외의 조합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읽었어요.”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지은이 조재근
퍼낸곳 한국문화사

“경영정보학과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는데요. 통계학이 경제·의학·생물학·금융 등 여러 분야와 융합하면서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학문임을 알 수 있어요. 딱딱한 수치로 인식되던 통계학이 좀 더 친숙하고 중요하게 느껴졌어요.”